

〈農水産部門〉

受賞數 제한에 우수작품 脫落



金 鏞 喆 教授
高麗大學校農科大學

금년도 농수산부에서는 초등 및 중고등학생이 4점, 초등교사작이 9점, 중고등교사작이 9점, 일반작이 5점, 합계 27점이 출품되어 수는 예년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월등히 향상된 것으로 보았으며 상의 수가 제한되어 몇개 우수작품이 수상대상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출품작중에는 새로운 資源을 개발하거나 鑛産資源의 利用度를 증진하는 課題가 많았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옷의 특성연구」이다.

옷칠과 국산 천연염료와의 화합 및 활성철등 금속과의 「컴플렉스」(Complex) 형성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옷칠 가공기술을 개발함으로써 傳來의 技術을, 새로운 高級工藝産業으로 전환케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되고, 옷의 生態的研究와 生産性分析으로 새로운 農林産業으로써의 옷 生産園地造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純耐虫性밤나무 特性識別과 接木育成」도 창의와 노력을 결집한 우수작품이었고 한국산 야생식물에서 새로운 식물성농약을 개발한 작품도 창의성 있는 우수작품이며 그외에도 바다나 육지에 있는 野生動植物을 利用, 飼料나 食品資源으로 活用하는 좋은 연구가 많았었다. 학생작품으로써 「천적 물개미를 이용한 송충구제」는 창의성이 큰 우수한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創造技法에 「아이디어」의 콤비네이션(Combinatio)이 하나의 主된 방법이란것을 우리는 알고있지만 動植物生産增大에 특이한 物理化學的 原理를

導入한 興味있는 연구가 있다. 「고전압을 이용한 동식물속성 사육재배에 관한 연구」로써 最近 各種 마이크로波나 放射線의 生物에 대한 영향이 중요시되고 있는 趨勢에 비추어 고전압이용연구는 앞으로 期待가 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적은 資材로 多目的活用을 기할 수 있는 農機具考案이 많이 出品되었고 「저동력용 고성능자동탈 맥기」는 탈맥작용에 遠心力機構를 活用한 좋은 작품이었다. 식품가공에 관한 좋은 연구도 있고 그중 일반에서 출품된 「발효밀쌀의 응용」은 우수작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양잠에 대한 담배발피해 결감문제, 사과에서 발산하는 가스의 생물학적작용, 野生資源植物에서의 새로운 變異의 發見과 이용등 注目할만한 연구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持續的 經濟發展을 단순한 勞動資源보다도 頭腦資源의 開發과 發揚에 그 原動力을 찾지않으면 안될것이나 이미 우리보다 低廉하 勞動力을 가진 印度, 中共, 기타 東南아세아 제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輸出成長이나 經源成長이 단순히 豊富한 勞動資濟을 가지고 있다는 點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時期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時點에서 科學展이 國民의 頭腦資源開發과 産業 또는 經濟發展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의 媒介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點에서 意義가 크다고 생각 한다.